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뉴스레터

Newsletter of the Korea Society for Moral & Ethics Education Association

2021년 8월호

- 홈페이지 : www.kmeea.com
- 메일주소 : kmeea@daum.net
- 학회주소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1-418
- 전화번호 : 02-880-7726

김 봉 제 (서울교육대학교, 본회 총무이사)

인간의 도덕의식, 도덕관념은 어떻게 생겨나고 변화되어 왔을까? 이 질문에 대해 독일 막스 플랑크 진화인류학연구소 공동소장인 마이클 토마셀로는 진화론적 관점으로 하고 있다. 인간이 지니고 있는 도덕성은 ‘공감의 도덕’에서 ‘공정의 도덕’, 그리고 ‘정의의 도덕’으로 진화되었다고 설명한다. 도덕성 진화의 설명은 고등동물에게서 나타나는 ‘상호의존 가설’에 근거하고 있다. 무리를 이루고, 상호의존을 해야 생존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고 ‘상호의존’을 생존의 중요한 도구로 선택을 하면서 본능적 이타성이 강화되고, 공감과 공정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고 이를 유지하려는 것에서 도덕성이 진화를 해왔다는 입장이다.

상호의존과 이타성이라는 인간의 본성을 근거로 한 도덕성의 진화는 매우 흥미롭고, 나름 합리적으로 이해된다. 타인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인간의 특성으로 인한 이타성, 공감, 공정, 정의와 같은 도덕성은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간이 축적해 온 도덕성, 경험했던 도덕성에 새로운 진화 가능성에 대한 도전이 있다.

인간형 인공지능(Human AI)은 그 시점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인류와 함께 살아갈 대 상임이 분명하다. 인간과 그 사회는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을 거치면서 상상할 수 없는 변화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또한 이와 동시에 개인과 사회에도 큰 위험을 직면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자율 시스템의 개발, 배치, 사용에 대한 신뢰는 기술의 고유 속성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사회 시스템인 사람, 조직 및 사회적 환경에 대한 관심도 기울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변화가 인간의 삶과 사회에 혁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사회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인간의 가치와 윤리적 원칙, 책임감 있고, 검증에 개방적이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이론과 체계가 부족하다. 이는 현재 많은 국가에서 인공지능 윤리를 국가 정책의 매우 중요한 이슈로 선정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도덕교육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도덕은 인간 고유의 특성으로 이해하면 되는가? 인간형 인공지능과 살아갈 인간은 인공지능과 어떤 도덕적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가?

인간형 인공지능의 등장을 대비한 도덕교육의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보다 미래의 사회에서 살아갈 학생에게 인간형 인공지능과의 도덕적 관계 설정은 매우 중요하고, 적절히 대비하지 못한다면 매우 충격적인 사안이 될 것이다. 기존의 도덕교육 연

구는 인간형 인공지능의 등장에 의한 도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도의 하나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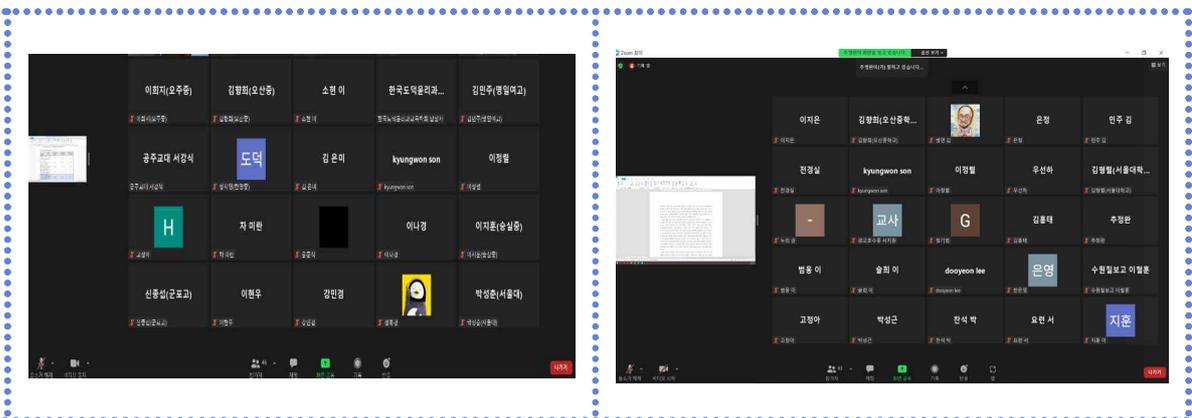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1년 6월에는 인공지능 공공 학습데이터 구축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국가사업의 하나로 「텍스트 윤리검증 데이터」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텍스트 윤리검증 데이터」 구축 사업은 인간형 인공지능에게 필요한 학습데이터 중에서 인공지능의 도덕성 구축을 위한 필요성을 제시하여 진행되었다. 인공지능을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는 한계와 반드시 개발되어야 할 인공지능의 도덕성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사업이 채택되었다. 이는 도덕교육의 관점에서 반드시 인공지능의 도덕성을 대비해야 한다는 제안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인간형 인공지능의 등장과 함께 살아갈 사회 환경은 분명히 우리 모두가 직면하게 될 미래이다. 이 미래사회에 대비해서 도덕교육은 기존의 연구와 노력에 더해 인공지능과 도덕교육이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을 찾아내고 구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II 학회 동정

1. 연차학술대회 진행

8월 6일(금) 오전 10시부터 비대면(ZOOM)을 통해 제 32회 연차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연차학술대회는 대주제인 ‘자신과 세상의 변화를 위한 도덕과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 탐색’을 중심으로 분과별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약 200명의 회원님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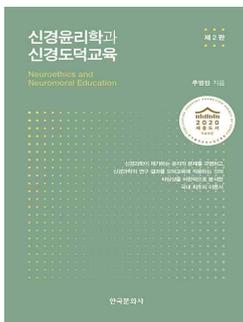


2.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지원 사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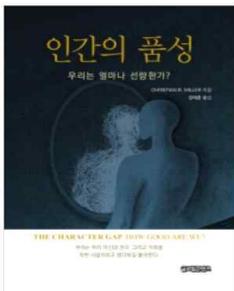
저희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에서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추진하는 ‘2021 학술대회개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사업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늘 학회 발전을 위한 회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학회비 및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을 회원님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III 회원 동정

1. 출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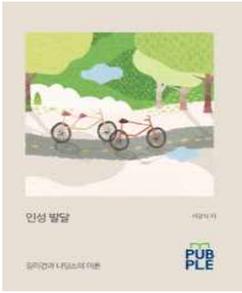
○ 본 학회의 고문이자 편집위원이신 춘천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추병완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신경윤리학과 신경도덕교육』이 2021년 8월 10일 한국문화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2020년 세종 우수 학술도서로 선정되었으며 신경윤리학의 학문적 중요성을 토대로 도덕교육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2판에는 트랜스휴머니즘, 생명보수주의, 도덕교육에서 직관과 추론의 관계 분석에 관한 3개의 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신경윤리학의 주요 쟁점과 신경도덕교육 이론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본 학회의 고문이자 학술상 위원장이신 공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김태훈 교수님께서 번역하신 『인간의 품성』이 2021년 5월 30일 글로벌콘텐츠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품성과 관련한 철학적·심리학적·경제학적·신학적·교육학적 시각과 접근 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노력과 함께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의 도움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품성의 중요성과 선한 품성을 계발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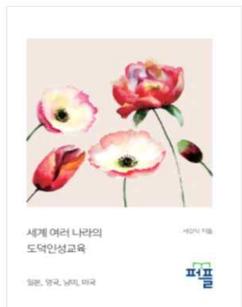
○ 본 학회의 대외 협력 위원장이신 광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이재호 교수님, 회원이신 광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한찬희 교수님 등 5인께서 공동으로 집필하신 『도덕철학과 도덕교육』이 2021년 4월 5일 교육과학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도덕철학과 도덕교육의 관계에 관한 열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도덕철학과 도덕교육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으며, 장차 도덕과 수업을 담당하게 될 예비교사와 현재 도덕과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본 학회의 고문이자 학술상 위원이신 공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서강식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인성 발달-길리건과 나딩스의 이론』이 2021년 3월 16일 퍼플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배려를 중심으로 한 길리건의 인성발달이론과 나딩스가 제시한 구체적인 배려윤리교육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배려윤리의 도덕 교육적 의의와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배려윤리 교육 방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본 학회의 고문이자 학술상 위원이신 공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서강식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수신-일제강점기 초등교과서 분석』이 2021년 3월 16일 퍼플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수신’은 1895년 7월 갑오개혁 정부가 국민교육 강화의 방침을 내걸고 ‘소학교령’을 반포함에 따라 만들어진 교과입니다. 일제가 소학교를 보통학교로 개칭한 직후 ‘수신’ 교과를 주요 교과목으로 지정하고 교과용 도서의 검인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 ‘수신’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제 식민지하의 초등학교 교육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본 학회의 고문이자 학술상 위원이신 공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서강식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세계 여러 나라의 도덕인성교육』이 2021년 3월 25일 퍼플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세계 여러 나라의 도덕인성교육의 현황을 탐색하고 우리나라 도덕인성교육 발달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일본, 영국, 남미, 미국의 도덕인성교육의 실태와 도덕인성교육의 교재로 사용하는 교과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IV	공지 사항
-----------	--------------

1. 학회비 안내

본 학회의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학술지 『도덕윤리과교육』을 연 4회 구독하실 수 있으며 학술대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연회비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정산되오니, 연초에 연회비를 납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회비 납부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연회비 : 일반 회원 3만원 / 이사 및 임원진 : 10만원
 - ※ 납부 계좌 : 국민 206001-04-182088, 예금주 :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 ※ 학회비를 입금하실 때 반드시 성함과 함께 소속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봉천중학교 홍길동 → 홍길동 봉천중
-

납부 명단

- 특별회비: 박균열(10만), 박동준(100만), 박찬석(10만), 이영문(10만), 정창우(150만)
- 연회비(이사 및 임원진): 강민겸(3만), 권재은(3만), 김남준(10만), 김도건(10만), 김민재(3만), 김병연(3만), 김아영(3만), 김완수(3만), 김윤경(3만), 김은미(3만), 김은수(3만), 김진하(3만), 김태훈(10만), 김하연(10만), 김현수(3만), 노영란(3만), 문일호(3만), 박찬석(10만), 박형빈(10만), 서강식(3만), 석자춘(3만), 송선영(10만), 신중섭(3만), 심한식(5만), 우맹식(3만), 윤영돈(10만), 이동현(3만), 이상호(3만), 이인재(3만), 이인태(3만), 이재호(10만), 이정렬(10만), 이지은(3만), 정대성(3만), 조일수(10만), 조주현(10만), 최윤정(3만), 추병완(3만), 홍석영(10만)
- 연회비(일반 회원): 강미숙(3만), 고미숙(3만), 권미정(3만), 김상무(3만), 김연숙(3만), 김홍태(3만), 박성근(3만), 박학래(3만), 서유정(3만), 세키네(3만), 이슬기(3만), 이승철(3만), 이운주(3만), 이준연(3만), 이한진(3만), 전주교대 도서관(10만), 정결(3만), 정상봉(3만), 정우석(3만), 최용성(3만), 한찬희(3만), 황인석(3만)
- 평생회원: 김상범, 김연숙, 김혜진, 박균열, 박동준, 박병기, 서은숙, 신중섭, 양방주, 이경희, 이영문, 이인정, 장유정, 정탁준, 최형찬, 황인표

※ 21. 08. 30. 기준

2. 투고 안내

○ 학술지 『도덕윤리과교육』의 73호 투고 논문을 모집합니다. 73호의 논문 투고 마감일은 2021년 10월 15일(금)까지입니다. 투고를 희망하시는 회원님께서서는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의 잼스 시스템(kosmee.jams.kr)을 통해 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에 통과한 논문의 게재료: 연구비를 수혜받은 논문은 1편당 30만원, 일반 논문은 1편당 20만원을 납부한다.

※ 논문의 기본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이내로 한다. 학회지 기준 20쪽을 초과할 경우, 1매당 10,000원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하되, 200자 원고지 200매 이상은 게재대상에서 제외한다.(2021.4.28. 개정)